



8일 김진군 군서면 벚꽃길에 모습을 드러낸 기아자동차 '올 뉴 카렌스'. 이전 모델보다 연비와 주행 성능이 향상됐다. (기아차 제공)

브레이크 밀림 없고 코너링 '굿'

기아차 '올 뉴 카렌스' 시승해보니

가족 4명에 짐 실어도 동력성능 충분 넉넉한 실내공간에 다양한 편의 사양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담 생산하는 '올 뉴 카렌스'의 시승행사가 8일 열렸다. 이전 모델이 나온 뒤 7년만의 후속차량인데 디자인이 큰 폭으로 바뀌어 기대하는 바가 컸다. 기아차가 '모두가 원하는 차'로 컨셉트를 맞춘 만큼, 다양한 고객층의 욕구를 얼마나 정확히 짚었는지도 궁금했다. 기자가 탑승한 차량은 5인승 1.7 VGT 경유 차량으로,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33.0kg·m, 연비 13.2km(자동변속기 기준)의 엔진 성능을 갖춘 프레스티지(출고가 2420만원) 등급이었다.

주행성능 = 버튼 시동을 누르자 디젤엔진 특유의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왔다. 점차 상태의 엔진소리는 위쪽은 듯 조용해 엔진 피스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액셀레이터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무거운 편이었다. 지구가 밟자 RPM이 치고 올라갔다. 시속 60km까지 가속감은 상당했고, 6단 변속기는 부드럽라웠다. 가다 서다 반복되는 시내 주행에서도 덩치에 비해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승 목적지는 강진 왕인박사벚꽃축제장. 49번 지방도에 올라서자 오르막에 힘을 썼다. 100km까지 속이 힘들었다. 내친김에 지구가 힘을 더 실었다. 150km까지도 스트레스 없이 올라갔다. RPM은 3000대에서 강한 힘으로 차를 끌어냈다. 고속 상태에서 스티어링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안정감이 느껴졌다. 가족 4명이 타고 짐을 충분히 실어도 동력 성능의 부족함은 없게 보였다. 최근 기아차의 추세처럼 단단한 서스펜션은 인상적이었다. 요철을

넘을 땀 부드럽다. 속도가 붙으면 탄탄했다. 승용차보다 높은 차고임에도 코너링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1열 버킷시트는 몸을 잘 붙잡았고, 225/45/17 규격의 타이어는 안정성을 더했다. 이번 시승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것은 브레이크 성능.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의 고질적 문제였던 브레이크 밀림 현상은 찾기 힘들었다. 고속 주행중에도 브레이크는 즉각 응답하며 차체를 원하는 위치에 세웠다. 경유 차량이지만 정속성은 휘발유 차량에 비견할 만했다. 시속 140km에서도 풍절음이 잘 차단돼 일상적인 대화는 무리가 없었다.

◇디자인·공간 = '올 뉴 카렌스'는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2013 레드닷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과거의 카렌스에 비해 차체가 낮아져 날렵해 보이는데다 '호랑이 코' 디자인의 큼직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역동성을 더했다. 직선을 위주로 한 K 시리즈에 비해 다소 곡선이 가미됐으면서도 최근 유행하는 LED 주간 전조등과 포지션 램프로 세세함을 살렸다. 와이퍼는 '대항형'으로 채택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된 와이

어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며 창문을 닦는 식이다. 후면부는 스포티지R과 닮았으면서도 선을 단순화 해 시원시원한 느낌이 전해졌다.

캡토퍼 디자인으로 앞면이 짧게 보였지만 실내 공간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컸다. 특히 2열의 레그룸은 상당히 넉넉해 4명 가족의 장거리 여행도 불편이 없어 보였다. 승용차보다 높은 실내 차고 덕에 신장이 큰 사람에게도 충분한 활동성이 제공됐다. 시트는 활용성이 다양해 폴딩 기능을 조합하자 여러 적재공간이 만들어졌고, 트렁크의 적재공간 밑에 위치한 수납공간은 짐을 분류해 넣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버튼 클릭 한 번에 앞뒤로 열렸는데, 2열에서도 개방감이 충분히 보였다. 가족을 위한 차로 구입한다면 필수 옵션. 세련된 디자인에 넉넉한 공간감 활용성, 뛰어난 주행성까지 기아차가 작심하고 만들어냈다는 느낌이 다가왔다. 특히 세단과 RV의 장점을 결합했다는 기아차 측의 설명답게, 스타일과 활용성을 중요시 하는 고객이라면 구미가 강하게 당길 차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기아차 해외 누적 판매 5000만대 돌파

현대·기아차의 해외 누적 판매 대수가 8일 50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1976년 현대차가 한국 자동차 첫 고유모델인 '포니' 6대를 에콰도르에 처녀 수출하고, 기아차가 1975년 '브리사 픽업' 10대를 카타르행 운반선에 선적한 이후 40년이 채 안돼 이룩한 결실이다. 5000만대째 해외판매는 이날 울산

공장 수출선적 부두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투싼ix, 아반떼, i30, 제네시스 등을 선적하면서 달성됐다. 5000만대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830만대 이상 판매된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모델 아반떼를 한 줄(전장 기준)로 세우면 지구 둘 5.7바퀴 돌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첫 해외 수출 이후 27년만인 지난 2001년 해외 누적 판

매 1000만대를 돌파했고, 2000만대까지는 1000만대 돌파 이후 5년만인 2006년에 달성했다. 이후 해외 판매 대수는 가속도를 내며 2009년 3000만대, 2011년 4000만대를 연이어 경신했고, 5000만대는 4000만대를 돌파한 지 20개월 만에 달성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 스판덱스 글로벌 마케팅 강화

美·동유럽·동남아 등 해외 신시장 개척 박차

효성이 스판덱스 원사 브랜드인 '크레오라'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에 본격 나섰다. 효성은 8일 독일과 폴란드 100여개 고객을 초청해 사흘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사 제품과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또 18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해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인도 인터텍스' 전시회 및 23일 미국 기저귀 시장 공략을 위해 'IDEA2013'

(International Engineered Fabrics Conference&Expo)에 참여하는 등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성 스판덱스 '크레오라'는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로, 가볍고 신축성이 뛰어나 T-셔츠와 안티리, 운동복 등 의류 3발 가운데 1발이 사용할 정도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효성은 1992년 세계에서 네 번째,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2010년 듀폰 등 글로벌

별 기업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30%대의 세계 최대 업체로 도약했다. 현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스판덱스를 비롯한 섬유사업을 이끌고 있다. 조 사장은 중국·베트남·터키·브라질 등에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 스판덱스를 세계 1위 제품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스판덱스는 섬유 부문 성장을 이끄는 핵심사업으로 전세계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성장세가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민 디딤돌 되겠습니다"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캠프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장영철 사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홍승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장병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헌신식'을 개최했다. 캠프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바퀴드릴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세청 1급 전원 사표

고위직 물갈이 인사 예고

김덕중 국세청장의 취임을 계기로 현재 국세청 1급 고위직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따라서 오는 11일 전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의 고시 2회 선배인 조현관(행시 25회) 서울청장과 동기인 박윤준(분청 차장, 김은호 부산청장 등이 사직서를 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이 떠난 중부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1급 4자리가 모두 새로운 인물을 맞게 됐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김경수 대전지방청장(국감급)도 사의를 표했다. 1급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제갈 경배 국세공무원연수원장, 송광조 감사관, 이종호 법안납세국장, 이진환 개인납세국장 등 행시 27회 4명과 임환수 조사국장, 김연근 징세법무국장 등 행시 28회 2명이다.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과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특별승진 케이스 2명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예비스타 입주기업 4개사 선정

광주테크노파크가 8일 ㈜코셋·㈜엘디스·㈜하이솔라·㈜와이즈파워 광주지점 등 4개사를 예비스타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스타 입주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를 대표하는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103개) 가운데

졸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선정한다. 광주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예비스타 입주기업에게는 기업진단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향후 기업공개(IPO) 및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18.69 (-8.54)	코스닥지수 528.78 (-18.73)	금리(국고채 3년) 2.47% (+0.03)	원·달러 환율 1140.10원 (+8.30)
--------------------------	--------------------------	-----------------------------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독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